

1

이 연구가 추구 한것

사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고고학적인 물증을 근거로 예가미(1948) 교수는 4세기 경에, 미마키(御間城入彦, 崇神)라고 부르는 미마나(任那, 伽耶)의 진왕(辰王)이 이끄는, 대륙의 기마민족에 의해, 일본이 정복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서기의 4세기 중엽에 관련된 기록을 직접 인용하면서, 레드야드(1975)교수는 북녘땅에서 내려온 부여(夫餘)의 무사들이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서부를 정복한다음, 자기들을 백제라고 부르면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필자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오오진(應神)이후의 기록들에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4세기 후반에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복하고 야마토 왜(大和倭)를 세운 것은, 일단의 백제인들 이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예가미의 대륙 기마민족에 의한 일본 정복설은, 레드야드의 부여 무사들에 의한 일본열도 정복 이론으로 발전 되었고, 이것은 필자의 백제 사람들에 의한 일본의 정복과 야마토 왜의 창건 모델로 발전된 것이다.

그래파아드(KEJ: 7, 126)는 “일본의 고분시대(서기 300-710)는 대륙으로 부터의 엄청난 영향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한개의 국가로 등장시킨, 그 극적인 변화들의 시기인 것

이다. 장래의 연구활동은 우리가 한일관계의 정확한 성격을 구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필자의 연구는, 백제와 야마토 왜 사이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구명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이제까지 야마토 왜의 기원을 둘러싸고 있었던 신비의 장막을 걷어내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오해를 불식 시켜보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다.